

# 남명 조식 유적지

## ■ 코스 지도

허리에 칼을 차고 다닌 조선의 대학자, 남명 조식 선생을 만나다



## ■ 오디오 가이드 리스트

구분	지명	주요내용	비고
1	남명기념관 내 남명선생 석상	남명 조식과 퇴계 이황	민속자료
2	남명기념관 내 신명사도	마음의 집을 그린 그림	민속자료
3	남명기념관 내 성성자와 경의검	칼을 차고 다니는 선비	문화재 / 설화
4	여재실과 남명묘소	남명선생 묘소	문화재
5	산천재	남명 선생의 후학 양성	문화재
6	덕천서원	후손들이 세운 서원	문화재
7	세심정	마음을 씻는 정자	문화재

## 1. 남명 조식선생

*"전하의 나라 일이 그릇되었고, 나라의 근본이 이미 망했으며 하늘의 뜻은 이미 떠나버린지 오래입니다. 이 나라는 백년 동안 벌레가 그 속을 갉아먹어 잔액이 이미 말라버린 큰 나무와 같습니다. 게다가 언제 닳칠지 모를 회오리바람과 사나운 비에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555년 조선 명종 10년, 남명 조식선생이 올린 상소문은 조정을 발각 뒤집어놓았습니다. 이 상소문에 명종은 굉장히 분노해 엄중한 벌을 내리고 싶었지만, 재야의 최고 위치에서 늘 올바른 말과 행동을 하는 남명 조식선생을 함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정 일각에서도 "군주에게 해서는 안 될 무례를 저질렀다"며 그를 처벌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상당수의 대신과 사관들은 "조식에게 죄를 주면 신하들이 임금에게 말을 올릴 수 있는 길이 막힌다" 면서 적극 변론했다고 합니다. 이토록 왕실에 대해서 쓴 소리를 해도 본인이 청렴결백했기에 모두에게 인정받았던 남명 조식선생.

남명 조식선생은 조선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이자 영남학파의 큰 이름입니다. 남명 선생의 사상은 실천을 강조하고 사회현실과 정치적 모순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하여 많은 학자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이러한 남명 조식선생에게 학문적 라이벌이 있었으니 그는 퇴계 이황 선생이었습니다.

남명 조식 선생과 퇴계 이황 선생은 모든 면에서 당대의 라이벌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501년 같은해에 태어난 남명 조식과 퇴계 이황은 나이가 동갑으로 퇴계 이황선생이 70세로, 남명 조식선생이 72세로 세상을 떠났으니 둘은 완벽하게 동시대를 산 인물이었습니다. 중앙정계의 관직을 맡았던 퇴계 이황 선생과 달리 평생토록 벼슬길에 나서지 않은 남명 조식 선생의 행적 또한 비교가 되곤 합니다. 남명 조식 선생은 퇴계학파가 현실 인식은 하지 않고 오로지 학문적인 이론에 대한 논쟁만 일삼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퇴계 이황 선생은 조식 선생의 학문이 이론에 깊이 못하다고 평하는 등 학문적 이견은 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가진 라이벌이었습니다. 평생 서신만 왕래했을 뿐 실제로 만난 적은 없었지만 1570년에 퇴계가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전해들은 조식은 눈물을 흘리며 "같은 해에 태어나고 살기도 같은 경상도에 살면서 70년을 두고 서로 만나지 못했으니 어찌 운명이 아닌가. 이 사람이 가버렸다 하니 나도 아마 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시며 학문적 동지를 잃은 슬픔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 2. 남명기념관 신명사도

이제 남명기념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명기념관은 지난 2001년 남명 선생의 탄생 500주년을 기념해 건립 되었습니다

이곳은 남명 선생과 관련된 각종 유품과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만나는 유품이 바로 '신명사도'입니다.

풀어서 얘기하자면 '사람의 마음이 사는 집을 그린 지도' 정도가 되겠군요

이 '신명사도'야 말로 남명 사상의 핵심을 한마디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우선 둥근 성곽이 보이시죠? 그리고 정중앙에 집 같은 건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태일군'이라는 한자가 세로로 써 있습니다. 중앙의 집 양옆과 아래에는 '성곽'을 드나드는 세 개의 문이 있네요.

우선 성곽의 안쪽부터 보겠습니다.

성곽의 안쪽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 중심에는 마음의 주인인 '태일군'이 위치하고 있죠

이는 어떤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지켜야 하는 욕심이 없는 '순수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성곽의 바깥쪽은 '마음을 혼란시키는 모든 욕심'을 의미하며 그것들을 막아내는 것을 깃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곽 외부의 '마음을 혼란시키는 모든 욕심'이 드나드는 곳은 어디일까요?

성곽 주위의 '세 개의 문' 기억나시나요?

이는 인간의 신체 중 마음을 어지럽히는 신체기관인 '눈, 코, 입'을 의미하며 항상 조심해서 사용해야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남명 선생께서는 마음의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욕심'들을 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적으로부터 성을 지켜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항상 행동해야한다'라는 의미로 이 그림을 그리셨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통해 올바른 선비가 가져야할 마음가짐을 상기시키고 제자들에게도 그 가르침을 전파하려 한 것이죠.

하지만 남명 선생의 가르침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올곧은 마음만 가지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아니다. 무조건 움직여 행하라"***

남명 선생은 '알지 못할까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신명사도'가 가지고 있는 깊은 뜻,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 3. 남명기념관 성성자와 경의검

남명 선생의 정신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유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방울과 칼’입니다. 이 두 가지는 남명선생이 늘 지니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성성자’라는 이름을 가진 방울에는 ‘늘 깨어있는 정신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남명 선생은 자신이 움직일 때마다 울리는 방울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고 마음을 다 잡기위해 늘 노력하셨습니다.

남명 선생께서는 ‘성성자’ 외에 몸 가까이엔 둔 물건이 또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경의검’입니다.

칼 손잡이 안쪽에는 ‘내명자경’, 바깥에는 ‘외단자의’라 새겨 넣고 ‘내면을 다스리는 것이 경이요 밖으로 실천하는 것이 의이다’라는 가르침을 늘 새기고 다니셨습니다.

칼이라는 강한 이미지를 가진 물품에 자신이 가장 중요시하는 진리인 ‘경’과 ‘의’를 담고 이를 목숨 걸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하신거지요.

이 경의검에는 남명 선생의 성품을 알려주는 일화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경상감사 남명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금번에 경상감사로 부임하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남명조식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반갑소이다. 우리 백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시오.

경상감사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나저나 평소 궁금한 것이 있어 실례를 무릅쓰고 한 가지 여쭙어도 되겠습니까?

남명조식 얼마든지 물어보시죠. 내 성심성의껏 답해 드리리다.

경상감사 제가 이야기를 듣기에는 방울과 칼을 늘 차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방울이야 무게가 그리 나가지 않지만 칼은 무겁지 않으십니까? 선비의 품모와도 어울리는 것 같지 않고....

남명조식 하하.. 전혀 무겁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대의 허리에 찬 돈주머니가 무거운 것 같은데. 아니 그런가요?

경상감사 (난처) 아... 제가 괜한 걸 여쭙었군요. 허허...

남명조식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무거운 것은 내려놓고 편히 가지지요.

경상감사 (부끄러워하며) 예, 알겠습니다.

남명 선생은 백성들의 삶에 대해 누구보다 고민한 선비였다고 합니다.

그의 문집인 <남명집>에는 백성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 근심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남명 선생의 제자인 정인홍 선생은 스승에 대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백성들의 괴로움을 염려할때면 마치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셨고 자리가 만들어져 이를 말함에 이르러서는 후 목이 매어 눈물을 흘렸다. 관리들과 더불어 이야기할 때는 일분이라도 백성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힘을 다해서 말했으니 후 베풀어지기를 바라셨었다.”**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남명선생의 마음이 제게도 전해오는 듯 합니다.

## 4. 여재실과 남명묘소

남명기념관의 오른편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여재실’이라는 정갈한 건물을 만나게 됩니다. 우측에는 ‘재실’이라고 쓰여진 현판이 걸린 단출한 건물이 있고 좌측에는 위패를 모시는 공간으로 구성된 이곳은 남명 선생의 후손들이 남명선생과 부인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드리는 가묘입니다.

‘가묘’란 조상의 위패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과 같은 역할을 한 장소로 이곳 ‘여재실’의 이름은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하늘의 진리는 언제나 존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명 선생의 품모를 닮아 멋진 뜻을 가지고 있네요

남명 선생은 72세의 나이로 후학을 양성했던 산천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날 지리산에는 큰 나무가 말라죽고 폭설이 내리고 뒷산이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인물을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이 컸다는 거죠.

그 슬픔은 왕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명 선생의 서거 소식을 들은 선조는 스스로를 ‘소자’라 칭하고, 서거를 애도하는 사제문을 내렸구요. 광해군 때 와서는 ‘문정’이란 시호와 함께 돌아가신 후에 영의정의 자리를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살아생전 벼슬 곁에도 가지 않았지만 사후에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오르게 된 거죠.

여재실 뒤편의 작은 문을 열고 울창한 소나무숲길을 따라서 한 10분 정도 천천히 올라가면 남명 선생의 묘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기대를 많이 했던 탓일까요? 묘 자체의 크기도 작지만 주변의 조경이나 비석들의 배치등이 너무나 소박해서 잘못 온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생전 허례허식을 멀리했던 선생의 품모로 볼 때 선생의 정신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 묘임에는 틀림이 없네요

선생의 묘소를 뒤로 하고 멀리 지리산쪽을 바라보세요

멀리 지리산 천왕봉이 보이시나요?

그리 높지 않은 산자락인데도 지리산과 덕천강, 그리고 덕산마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평소 지리산일대를 유람하며 “유두류록”이라는 유람기까지 쓰신 선생의 행적과 너무도 잘 어울리는 명당 자리에 위치하고 있음이 저절로 느껴집니다.

남명 선생의 묘역 아래에는 우암 송시열 선생께서 비문을 쓴 신도비와 사제문비 등 남명선생에게 헌정된 비석이 다섯 기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비석들은 남명 선생이 생전에 제일 멀리하셨던 허례허식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당파와 시대를 초월해 남명 선생을 아끼고 존경하는 마음이 각계각층에서 모여졌다는 것만큼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겁니다

## 5. 산천재

산천재는 남명 선생이 61세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머물렀던 거처이자 서당입니다.

뒤로는 의방산이 있고 앞으로는 지리산 천왕봉이 잡힐 듯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 곳은 한눈에 봐도 명당자리입니다.

학문적 경지에 이르렀지만 벼슬에 뜻을 두지 않았던 까닭에 지리산 자락으로 들어 와 이 곳에 '산천재'를 짓고 돌아가실 때까지 '남명학'을 완성하는데 전념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생은 이곳에 은거하며 학문에 매진하려 했지만,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흥의장군으로 잘 알려진 망우당 곽재우 장군, 송암 김면 장군, 내암 정인홍 선생등이 남명 선생의 가르침을 받고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특히 남명선생의 가르침을 받은 분들이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동하게 되는데는 평소 실천을 강조하시던 남명 선생의 가르침이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산천재'라 쓰인 현판의 위쪽을 한 번 보세요. 그림이 세 개가 있죠?

이 그림에도 남명 선생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데요, 문화관광해설사님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산천재 편액 위를 잘 보세요. 신선들이 소나무 아래서 바둑을 두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상산사호도'라는 그림인데요, 중국의 상산이라는 곳에서 네 명의 신선과 같은 머리가 하얀 노인들이 노송 아래서 한가하게 바둑을 즐기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 진시황 때 난리를 피해 산시성 상산으로 숨은 네 사람의 선비인데요, 오랜 세월 상산에 숨어 지냈는데 하산하였을 때는 다 같이 모두 눈썹과 수염이 흰 노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 왼쪽에는 농부가 소를 모는 '경작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상산사호도'와 '경작도'는 남명 선생께서 벼슬 길에 한 번도 나가시지 않고 오직 울곧은 처사로 지조를 지키며 지내겠다는 선생의 정신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생의 정신이 담겨진 그림에서 눈을 떼어 돌아보시면 산천재 앞마당에 있는 매화나무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남명선생이 산천재를 짓고 심은 매화나무인데요, 흔히들 '남명매'라고 부르죠. '남명매'는 남사마을의 '월정매', 단성면 운리 마을의 '정당매'와 더불어 '산청의 삼매'로 불립니다

그리고 보니 이 나무의 나이도 440년이 훌쩍 넘었군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맑고 눈부신 꽃을 피운다고 하니, 매화가 피어나는 봄에 이곳을 지나게 되면 꼭 한 번 찾아봐야겠네요.

## 6. 덕천서원

곧게 뻗은 은행나무 한그루와 성스러운 공간임을 나타내는 홍살문이 이곳을 그냥 지나 칠 수 없게 만듭니다

이 곳 덕천서원은 남명 선생이 세상을 타계 한 후 그의 제자들이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1576년에 건립합니다.

하지만, 임진왜란과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 등의 부침으로 인해 철폐 됐다가 1920년에 복원되었습니다.

여타 서원들에 비해 그리 크지는 않으나 건물의 배치 등에 엄격함이 묻어나와 남명 선생의 기품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홍살문을 지나 덕천서원의 정문인 '시정문'에 들어서면 서원의 전경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덕천서원의 전체적인 구조는 앞쪽에는 '학문을 위한 공간'을 뒤쪽에는 '제례를 위한 공간'을 배치하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면으로 서원의 본당인 '경의당(敬義堂)'이 서있고, 경의당의 오른쪽엔 '진덕재(進德齋)'가 왼쪽엔 '수업재(修業齋)'가 있습니다.

'경의당'이라는 이름은 남명 조식 선생이 중시했던 '경(敬)과 의(義)'의 정신을 이어받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남명 선생의 제자들은 경의당에 모여 학문을 연구하고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의당 옆의 진덕재와 수업재는 제자들이 기거하며 공부했던 일종의 기숙사 역할을 했던 곳이죠. a

경의당을 지나 뒤편으로 돌아가면 또 다른 문이 있는데, 서원 안에 있는 세 개의 문이라고 해서 '내삼문(內三門)'이라고 부릅니다.

이 문안에 남명 조식 선생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숭덕사(崇德祠)'가 있습니다.

가운데의 큰 문은 남명 선생의 혼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해서, 제사 때에만 열고 평상시엔 양 옆의 작은 문으로만 출입을 합니다.

지금도 매년 음력 3월과 9월 첫째일에 제사를 지내고 양력 10월 둘째 토요일에는 남명 조식 선생의 탄생을 기념하는 '남명선비문화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 7. 세심정

덕천서원의 맞은편에는 ‘세심정’이라는 작은 정자가 덕천강을 바라보며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씻는 정자’라는 뜻을 가진 이 정자는 덕천서원에서 공부하는 선비들이 설 수 있는 공간으로 남명 선생의 제자인 수우당 최영경 선생이 지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휴식의 공간만을 뜻하지는 않았습니다.

휴식이 의미하는 것이 ‘세심’, 즉 마음을 씻는다는 것이라면, 이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자각하고 반성하라는 의미도 담겨있습니다.

평상시에도 허리춤에 ‘성성자’를 차고 다니며 방울 소리에 늘 깨어있고자 했던 남명 조식 선생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 뜻을 이어받고자 했던 많은 제자들 또한 이곳 세심정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세심정과는 거리가 있지만 백운동에서 덕산마을로 가는 방향에는 남명선생께서 ‘덕산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뜻과 ‘군자가 덕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이름을 지은 ‘입덕문’이 있습니다. 1982년 도로가 개설되면서 옮겨졌지만 예전엔 한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의 벼랑길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도로변 한쪽에 옮겨놓았는데 붉은 글씨로 ‘입덕문’이라 적혀 있지요.

이 ‘입덕문’ 앞이 덕천강변입니다. 맑은 물과 아름다운 바위들이 즐비한 곳인데요,

이중에서도 남명 선생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은 ‘탁영대’라는 거대한 바위입니다.

탁영대는 ‘갯끈을 풀어 헤쳐 씻는 곳’이라는 뜻인데요, ‘물이 맑으면 내 갯끈을 씻고, 물이 흐리면 내 발을 씻으리’라는 중국시인의 시의 한 대목에서 따 온 이름으로 그만큼 덕천강의 맑은 물과 어울리는 운치 있는 바위입니다.

한그루의 소나무까지 멋지게 자리하고 있는 이 바위를 잘 살펴보면 ‘탁영대’라고 새겨진 글씨도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탁영대에서 남명선생은 제자들과 학문을 토론하고 나라의 앞일을 걱정하셨다고 합니다.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내면의 수양을 통해 경지에 이른 유학자의 삶을 살았던 남명 조식 선생의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